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계명대학교 부교수)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4.8) 발표자료

목 차

1. 북한 국내정치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심리학적 기초
2. ‘극장’은 과연 신념에 찬 엘리트층을 만드는가?
3. 독재정치에서 엘리트층의 피동성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
4. ‘극장국가’의 심리학
5. 정책제언

1. 북한 국내정치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심리학적 기초

- 북한은 과연 위기인가?
 -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핵심 주장은 모든 사회적 현실에 대한 평가는 행위자의 기대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임. 그 예로, 불행한 은메달 선수와 행복한 동메달 선수의 대비되는 모습을 들 수 있음
 -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김정일의 문건이 북한 정권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표현함.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경제발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
 - 손자가 말하는 선수자(善守者)의 전형적인 사례인 북한은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수비능력이 아주 뛰어나.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북한이 손실의 영역(domain of loss)에 들어가 있다고 평가하는 빅터 차의 주장에 필자는 반대
 - 정권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domain of gain)에서 북한 정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내 경제개혁을 추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2. ‘극장’은 과연 신념에 찬 엘리트층을 만드는가?

- 북한 엘리트층의 기회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
 - 태도와 행위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층의 사상적 순수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예상됨
 -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부적 유인이 강할 경우 내부적 정당화가 어려움. 지위와 특권이라는 외부적 유인이 과도한 경우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내면적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 유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 북한 엘리트층이 신념에 찬 공산주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은 당 간부의 이권 다툼과 양봉음위(장성택의 죄목 중 하나)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누구의 소유인지가 애매모호한 국유재산을 둘러싼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갈등 행태도 자주 보도됨
 - 과연 북한 엘리트층은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인간의 인식은 눈과 뇌의 공모가 작동하여 발생함. 뇌는 눈이 제공하는 정보 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요리함. 뇌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양식과 유사함.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미리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자신의 가설을 확인함. 뇌는 현실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만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함. 하지만 여전히 뇌의 공간은 눈이 반영하는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 즉 우리는 사자를 개로 착각하지는 못함

- 북한의 현실은 뇌의 공간을 벗어날 정도로 어려움. 주체적이라는 주장으로 북한을 미화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음
- 김정일의 공포정치가 충성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추측
 - 한번 공동체관계가 파괴되고 물질적인 이해가 지배적인 상태에서 다시 공동체적인 신념으로 돌아가기는 무척 어려움. 이는 한번 어긋난 연인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함
 - 공동체적 사회관계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상호신뢰에 기초한 인내와 손해를 전제함
 - 강등과 복권이 반복될 경우, 두려움은 강화될 수 있으나 충성심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함
- 북한에서 충성파는?
 - 현실에 대한 극단적 정당화는 가능.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극단적 주지주의와 정치주의임. 주체사상은 맑시즘의 경제결정론과 정반대로 의식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주장함. 소수의 충성파는 사회적 생명체론, 의미 있는 삶과 훌륭한 사회 등에 대한 개념을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선택과 북한 사회를 평가
 - 뇌의 공간을 극대화시켜 현실을 크게 왜곡할 수 있음. 현실은 왜곡의 대상이지 부정의 대상은 아님. 현실의 경계선에 있는 포토샵 처리된 모습은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음
 - 적당한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미, 의미 있는 삶, 훌륭한 사회 등 많은 사회적 개념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임. 개념은 추상의 사다리와 다른 이미지이고,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가까움. 예를 들어, 리더십이 좋은 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를 취하는가에 따라 리더십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름. 우리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의를 취하여 현실을 평가함. 현실의 애매모호성을 이용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현실을 입맛에 맞게 요리함
 - 주체사상의 교리 속에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소수의 충성파는 수령의 존엄과 위대성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음. 이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북한 정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핵심 대중(critical mass)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이들은 반대세력의 출현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음

**강등과 복권이
반복될 경우,
두려움은 강화될 수
있으나 충성심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

독재정치에서
엘리트는 언젠가
사냥당할 운명이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가축처럼
피동적 모습을
보여...

3. 독재정치에서 엘리트의 피동성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

- 북한 엘리트는 왜 독재자에 대항하지 않는가?: 심리학적 가설
 -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엘리트의 회의적 태도를 가정하는데, 현실 주의적 사고에 따라 독재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이에 미리 대비하려는 엘리트의 선택을 의미함
 -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독재정치에서 보여준 엘리트의 모습은 언젠가 사냥당할 운명이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가축의 모습. 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가정하는 엘리트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임
 - 개인독재정권에서 엘리트의 심각한 피동성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미래의 소득을 할인하는 지수적 할인(exponential discount)이 아니라 현재의 이익에 대비하여 미래의 소득을 크게 할인시켜 버리는 인간의 일반적 인식 태도를 가정할 경우, 현재에 안주하는 엘리트의 선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커다란 직위와 특권을 지금 당장 잃을 걱정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 내일이 다시 오면 어제의 오늘과 똑같이 현재에 안주하는 선택을 함
 - 둘째, 유죄추정의 원칙 대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현실은 많은 경우 애매모호함. 야구 등 스포츠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데, 투수의 공에 우리 팀 타자가 세계 맞았다면 실수 여부를 떠나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으로 추정함. 반면, 개인독재정권에서 엘리트는 독재자의 불확실한 의도를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애매모호한 사회적 현실에서 어떠한 가설을 가지는가에 따라 이미 답은 정해지고, 인간 인식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인해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고자 노력함. 그리고 마침내 증거를 찾는 순간, 그 증거가 엄밀하지 않을지라도 가설을 받아들임. 장성택이 김정은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이기 때문에 이를 확증할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여기에서도 독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가설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독재자의 말과 행동을 가설에 부합하는 쪽으로 해석하여 가설을 확증하고 안심하는 엘리트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음
-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심리적 정치적 효과

- 정박효과(anchoring effect)와 세상은 정의롭다고(just-world hypothesis) 믿고 싶어 하는 소망. 정박효과로 인해 고문에 의한 자백을 다소나마 믿는 경향이 발생함. 세상은 정의롭다는 믿음은 피해자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불운, 즉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노여움과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확보하려는 것을 의미함. 공개재판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숙청을 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관찰자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한편, 독재자의 폭력이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가져옴
-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핵심은 바로 공개성.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권력의 원천. 폭력적 권력 행사의 공개성은 권력의 소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관찰자 모두에게 제공함
-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통해 이루어진 김정은의 절대성에 대한 공개적 인정과 인지는 관찰자의 절대 복종으로 이어짐

4. '극장국가'의 심리학

- 정치적 의례나 행사에 의거하여 권력을 과시하는 극장국가로 북한을 개념화한 극장국가론은 북한정권의 지배담론을 날카롭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함. 그러나 극장국가론은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사적 신념과 정치적 태도에 미칠 극장의 심리적 영향과 이의 집합적 결과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국가 논자들은 “다양하고 두터운 상징적 행위”가 만들어 내는 상징권력이 북한 주민의 동의를 유발한다고 주장함. 과연 극장국가의 주된 효과는 동의인가?
- 극장국가에서 행하는 무수한 집회는 무엇을 만드는가?
- 군중집회라는 상황 자체는 육체적 흥분과 감정의 전파를 발생시키고, 군중은 심적 흥분과 감정의 전염을 통해 일시적으로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 그러나 군중심리는 지속적이지 않음
 - 설득은 소규모 포대 집단의 지속적인 토론과 자발적 소집단 활동을 통해 달성됨.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사상총화’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태
 - 동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 전제는 자발성이고, 비자발적 행동은 태도의 내면화로 이어지기 어려움. 그 이유는 외부의 강제력에 자신의 행위의 원인을 돌리기 때문임. 자발적 행동은 내면의 태도와 모순을 일으킬 경우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태도의 변화를 유발함. 혹은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통해
이루어진 김정은의
절대성에 대한
공개적 인정과 인지는
관찰자의 절대
복종으로 이어져...*

**북한이라는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 행위는
정박효과와 근본
귀인 오류를 통해
타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오해를 초래**

내면의 가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발적 행위는 행위에 일치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함

- 극장의 지배적인 효과는 동의와 설득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social proof)와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로, 여론에 대한 오해를 낳을 개연성이 높음.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동조(compliance)가 주된 효과일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라는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 행위는 타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오해를 낳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박효과를 예상. 인식의 출발점이 인식의 마지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명명백백한 거짓말과 오리발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 북한 주민과 엘리트가 개인우상화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이는 분명히 외부적 압력에 기인한 것임을 알지만 관찰자는 관찰대상자의 정치적 태도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함. 관찰대상자가 공개적으로 표한 과장된 충성이라는 출발선으로부터 충분히 내려오지 못함. 관찰 대상자의 정치적 태도가 수령에게 우호적이라는 결론을 내림
 - 근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자신의 행위는 상황적 맥락에 의거하여 설명하나 다른 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내면적 태도로 원인을 돌리려는 경향을 의미함. 즉, 관찰 방향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인지적 비대칭성을 뜻함. 구체적으로, 강요로 인해 카스트로를 찬양하는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정치적 태도를 좌파적으로 인식하는 실험 결과를 사례로 들 수 있음. 이를 북한에 적용하면 숙청과 정치적 박해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선호를 거짓되게 표현한다는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로, 집회에서 수령에 충성을 맹세한 자의 행위를 그의 내면적 기질과 태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됨
- 극장국가는 주민과 엘리트가 기존 공유지식, 즉 여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수행
- 공유지식이란 상호 인지되고 있다고 다수가 믿는 정보, 신념, 규범, 태도, 행위적(無)의지 등을 의미함. 공유지식은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정의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선택을 한쪽으로 인도함. 정박효과와 근본 귀인 오류는 다수의 생각에 대한 다수의 오해를 양산하여 특정 공유지식을 형성하고, 이는 심대한 정치적 파급효과를 지님
 -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정의 이해가 강한 독재정치의 신민들은 극장이 생산한 공유지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함

- 극장국가 북한: 극장의 공연은 동의보다는 다수의 태도에 대한 다수의 믿음을 형성함. 그리하여 개개인의 사적 선호의 변화를 유발하기보다는 다수의 태도에 대한 다수의 믿음에 영향을 줌. 극장이 유인하는 북한 주민과 엘리트의 선택은 동의보다는 동조와 묵종(acquiescence)에 가까움
- 예상 가능한 북한 주민의 오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정권에 대한 불만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
- 다수의 선택에 대한 다수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수많은 이의 참여가 필요한 정치적 동요와 집단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적 공적 표현마저도 스스로 억지함
- 수십만 명이 군중집회 등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외치면서 다수의 사적 태도에 대해 다수가 오해함.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짧은 주기를 두고 지속함으로써 기존의 공유지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

○ 극장의 정치적 효과

- 개인독재권력의 근본은 모두가 수령의 절대적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상태이고, 권력의 원천은 조정
- 매일 반복 공연되는 다양한 집회와 문화행사는 수령의 절대적 존엄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거나, 최소한 다수가 굴종하고 있다고 모두 믿는 상태임을 널리 알림
- 이러한 인식이 퍼져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은 복종임
- 극장은 개인독재를 지지하는 근본적 지배 장치
- 극장은 신념의 확산이 아니라 다수의 사적 태도와 괴리를 보이는 공유 지식의 확산과 공고화를 통해 기존의 조정균형을 ‘철용성’처럼 보위함

극장은 다수의 사적 태도와 괴리를 보이는 공유지식의 확산과 공고화를 통해 기존의 조정균형을 ‘철용성’처럼 보위

5. 정책제언

- 수령제에서 모든 변화는 김정은에서 비롯됨. 북한의 국내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의 기대심리와 시간지평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개혁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평가하는 개인의 준거점이 높아져야 함. 손익 평가는 행위자가 인식한 현실에서 행위자의 기대를 제한 결과이며, 기대가 높을 경우 현실에 대한 손익 평가가 부정적임
- 혹은 김정은의 평가 방식이 바뀔 경우 상황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 단 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상상할 경우 김정은의 불안감은 높아짐. 삼십 년 뒤에도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를 상상할 경우, 현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

**극장국가가
만들어내는
상징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대안적
공적 정보로서,
북한 엘리트의 다원적
무지, 선호 위장,
조정 의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어...**

- 따라서 김정은이 먼 미래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선전활동이 필요함
- 평화와 개혁으로 유도하는 비대칭전략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공적 정보임
 - 한국 정부의 비대칭전략은 북한의 전통적 공유지식을 흔들 수 있는 심리적 내용과 전술임
 - 극장국가가 만들어 내는 상징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대안적 공적 정보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공적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 엘리트와 주민이 겪고 있는 다원적 무지, 선호 위장, 조정의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음
 - 북한 주민의 불만이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중 마지막 3단계의 인식이 필요함. 북한주민들은 주민들 사이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불만을 지닌 동료 주민의 수와 불만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함

1. 다수가 정권에 반대한다.
2. 다수가 정권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다수가 알고 있다.
3. 다수가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가 안다.

-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의 위험을 피하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북한 주민이 자신의 사적 태도와 의견을 안전하게 공개화할 수 있다면 극장국가의 효과성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음
- 소비자 스스로 상품을 알리는 광고의 다양한 기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북한에서 사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엘리트의 기회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공적 정보
 - 구체적으로 엘리트의 부패 정도와 이들의 해외 도피자금 정도 등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엘리트의 부패는 대부분 관찰이 어려움. 관찰 가능할 때만이 엘리트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대부분의 부패행위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엘리트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함. 첫째, 정권 스스로 이를 알리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투쟁이 있음. 반부패투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에는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만 알리는 꼴이 됨. 이러한 오류를 범한 대표적인 경우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인데, 그의 우유부단한 반부패투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련 엘리트는 부패행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음. 두 번째 예상 경로는 외부세력의

정보 유출로, 믿을 만한 외부세력이 북한 엘리트의 부패행위를 공개적으로 보고할 경우에 만연한 부패는 관찰 가능해짐

- 만약의 사태의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엘리트의 기회주의는 이중적 효과를 지님. 첫째, 기회주의적으로 살 길을 마련한 북한 엘리트는 국가 이외의 대안을 가지는데, 이는 북한 엘리트가 김정은 정권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필요성을 약화시킴. 둘째, 엘리트의 기회주의는 다수 엘리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엘리트의 믿음, 즉 엘리트의 공유지식에 영향을 줌. 엘리트는 광범위한 기회주의를 목도함으로써 다수 엘리트가 북한 정권의 미래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게 됨

- 김정은과 다수 엘리트를 분리시킬 수 있는 대북압박이 필요
 - 엘리트가 김정은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함
 - 외부세력이 엘리트를 고립시킬 경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엘리트의 협력의 이해는 더욱 강해짐. 독재정권의 유지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엘리트는 필사적으로 정권을 사수하려 함. 이는 정권의 내구성을 강화시킴
 - 적당히 놓아주어 적을 잡는 삼십육계의 욕금고종(欲擒故縱) 전략이 필요함

**엘리트와 김정은이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엘리트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수 있는
대북압박이 필요**

참고문헌

권현익 · 정병호. 2013. 『극장국가: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로버트 치알디니. 이현우 역. 2002. 『설득의 심리학』. 서울: 21세기북스.
 한병진. 2015. “개인독재의 가설.”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27-46.

Berger, Jonah. 2013. *Contagious: Why Things Catch on*. New York: Simon & Schuster.
 Cha, Victor D. and David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hwe, Michael Suk-Young. 2001.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ark, Margaret S. and Judson Mills.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7, 12-24.
 Elster, Jon. 2007. *Explaining Social Behavior: More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ke, Susan and Shelley E Talyor. 2013.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New York: Sage.
- Geertz, Clifford. 1980.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748. "Of the First Principles of Government." in *Essays, Moral and Political*. London: Cadell.
- Kahneman, Daniel. 2011. *Thinking, Fast and Slow*.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Kunda, Ziva. 1999.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IT Press.
- Myers, David G. 2010.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Schelling, Thomas.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rmer, Michael. 2012. *The Believing Brain: From Ghosts and Gods to Politics and Conspiracies: How We Construct Beliefs and Reinforce Them as Truth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Shirke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Penguin Press.
- Thaler, Richard H. 2015. *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저자 약력

■ 한병진

現 계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후, 2004년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에서 엘친과 푸틴 시기 러시아의 개혁정치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최근 정치경제학,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에 의거하여 독재정치이론 및 북한 정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